

남구, 창작극 ‘고경명과 호남의병’ 무대 올린다

26·27일 3차례 무료 공연
북장단·해설·음악 어우러져
“인문학 대중화 기여 기대”

광주 남구가 인문학 대중화를 위해 제 봉 고경명 선생과 호남의병을 다룬 창작극을 무대에 올린다. 서울 대학로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최치언씨가 연출에 참여한 작품으로, 임진왜란 발발부터 고경명 선생의 순국에 이르는 과정을 연극적 상상력으로 풀어내 관객들에게 큰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는 ‘1592 임진-고경명과 호남의병’ 창작극이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진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창작극은 올해 남구에서 의병장 고경명 선생의 애국 및 희생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 무대로 만나는 인문학 사업의 일환에서 제작한 작품이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호남을 중심으로 최대 규모의 의병전을 이끈 고경명 선생의 활약을 무대에 담기 위해 흥겨운 북장단과 해설, 음악과 강연이 어우러진 렉처 퍼포먼스를 도입해 관객들에게 다채

로운 공연 예술의 재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1592 임진-고경명과 호남의병’ 창작극 공연은 오는 26일 오후 4시, 27일 오후 3시 및 6시에 각각 열린다. 남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1회 공연당 관람객은 300명 내외다.

26일 첫 무대는 호남의병 후손들과 관내 주민들이 함께 관람할 예정이며, 27일 두 차례 공연에는 관내 중·고교 학생과 대학생, 주민들이 공연 현장을 찾는다.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주민은 남구 열린행복과(607-2614)에 전화로 사전 예

약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극적인 해설과 감성적인 영상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 호남의병 활약상까지 조명하면서 역사적 고취와 함께 인문학 대중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진왜란 당시 호남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고경명 선생과 이름 없는 의병들의 활약은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몫이다”며 이번 창작극 공연의 의미를 덧붙였다. **박찬기**지

충장축제 대비 안전대책 논의 동구, 종합상황실 등 운영 계획

광주 동구가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개최하는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동구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열고 축제 현장 시설물 등 현장 안전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열린 위원회에서는 축제 안전관리계획과 문제점 개선 대책을 수립했다. 동구주민안전과(동구안전관리자문단), 동부소방서·경찰서와 민관 합동으로 축제 현장을 사전 점검기로 했다. 또한 충장축제가 열리는 10월 2-6일 5·18민주광장에서 민관 합동 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종합상황실에서는 △인파 관리를 통한 안전 총괄반(동구청) △화재·응급조치 구조반(동부소방서) △범죄·교통 안전반(동부경찰서) △분야별 민간전문가(동구안전관리자문단) △응급 의료반(동구보건소) 등을 운영, 축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축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파(밀집)에 따른 사건·사고를 방지하고자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시로 합동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민헌기**지

2024 좋은 만남 청년공감토크 참가자 모집

2024. 10. 12. / 10. 19. 매주 토요일(2회차 진행)
북구 행복어울림센터

대상: 1997년생(27세)-1989년생(35세) 미혼남녀 30명(남 15, 여 15)

1개 이상 목적
1. 광주 북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경제활동을 하는 자
2. 광주 북구에서 소외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 및 봉사(자원봉사) 경험자

2024. 9. 9(일) - 9. 27(일) 차등지정 (18명/2인)

신청처: 02-410-8027 (serene32@korea.kr)

참가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본인인증명세서 1부
제출방법: 또는 서면(자치행정담당 등 경제활동 증명서 등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주요내용: 청년취업희망토크(10월 12일), 청년취업희망토크(10월 19일) 등 2회차 진행

차별금지 및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장애인차별, 노인차별, 아동차별, 장애인차별
광주 북구 청년취업희망토크 연구개발팀 (02) 410-8027
※ 차등지정: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우선 선발

광주광역시청



광주 광산구는 지난 20일 오후 송정다누리센터에서 송정다누리청소년문화의집 개관식을 개최했다.

광주 광산구 제공

청춘남녀 토크행사 참가자 모집 북구, 거주·활동 남녀 각 15명

광주 북구가 오는 10월12일과 19일 북구행복어울림센터에서 진행되는 ‘좋은 만남 청년 공감 토크’ 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사는 청춘남녀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결혼과 삶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북구에서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1989년생부터 1997년생까지의 미혼 청년으로 오는 27일까지 남녀 각 15명씩 총 30명을 모집한다.

12일 열리는 1회차 만남에서는 자기소개, 팀빌딩 게임 및 문화프로그램 체험과 저녁 파티, 자유 대화등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다.

19일 2회차 만남에서는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호감도를 확인,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인식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북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이메일(serene32@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청년미래정책관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청년 공감 토크 행사를 통해 선남선녀들 간 아름다운 인연이 많이 맺어지길 바란다”며 “결혼과 출산은 인구문제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만큼 앞으로 양육·주거 부담 완화 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광산구, 송정다누리청소년문화의집 개관

청소년 마을놀이터 역할 기대

광주 광산구는 지난 20일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송정다누리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산구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지만, 다른 구보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족하다.

특히 송정권(송정1·2동, 도산동, 신흥동, 어룡동)은 청소년 시설이 전무해 소

외되고 열악한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광산구는 지난 2019년 ‘생활 사회기반 시설(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34억 4700만원을 확보하고, 북합커뮤니티센터 송정다누리(광주 광산구 광산로 70) 2·4·5층에 1189㎡ 규모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했다.

청소년문화의집 내 주요시설은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음식, 놀이, 휴식 공간) △북카페 △노래방·파티룸 △밴드연

습실 △댄스연습실 △특성화교육실 △미디어 작업실 등으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설치했다.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 7월 비아청소년자율공간에 이어 송정다누리청소년문화의집을 열게 돼 기쁘다”며 “지역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지

서구 ‘세큰대 마을자치학과 기획자과정’ 개강

광주 서구가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활동을 위해 ‘제2기 세큰대 마을자치학과 기획자과정’을 개강했다.

22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과정은 마을자치학과 입문과정 수료생과 1년차 이상 마을활동가 30명을 대상으로 내달 11일까지 총 10강의 특강으로 진행된다.

지난 20일 더 이음 공동대표 이호강사의 ‘마을공동체와 마을자치’ 강의를 시작으로 ‘착한도시 서구’ 마을가치이음 실천을 위한 △건강한 마을모임 △민주적 소통회의 △마을문제해결 실험 △마을활동 자기비전 수립 등 실천 주제를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와 선배 마을활동가들의 생생한 경험과 코칭이 있는 강의와 워크숍이 준비됐다.

서구는 전국 최초로 마을공동체 교육 과정에 ‘대학’ 개념을 도입해 마을활동가 역량강화와 마을공동체 성장을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을 2년에 걸쳐 지속 운영하



광주 서구가 지난 20일 제2기 세큰대 마을자치학과 기획자과정 개강식을 개최한 가운데 수강생들이 개강을 자축하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제1기 세큰대 마을자치학과’ 최고과정인 전문지원교육을 수료한 마을활동가들은 ‘착한도시 서구’의 마을·아파트공동체전문지원단으로 활동하며 관내 100여개 마을·아파트공동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수행하는 마을 현장의 전문지원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의춘 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마을활동가들의 활동과 경험이 전문지식이 되고 이를 활용해 행정의 부족함을 민관협력으로 풀어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교육생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착한도시 서구 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상이**지

‘창업 희망 청년’ 공개 모집 남구, 30일까지 접수

광주 남구가 백운광장 일대를 역량 있는 청년들의 경제 활동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층 인구 유입과 백운광장 주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 창업가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사업과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백운광장 일대 공실 및 폐건물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을 뒷받침하는 백운광장 청년 MEET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백운광장 청년 MEET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가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백운광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 구역 내에서 진행된다.

남구는 오는 30일 오후 1시까지 만 19~39세 사이의 예비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한 뒤 30명(팀)을 모집할 예정이며, 신청서는 남구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남구 알림 코너에서 ‘청년 MEET’ 배너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을 통과한 청년 창업가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공모전에서 가장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한 청년 5명(팀)에게는 각각 사업화 자금 2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청년 창업가 30명(팀) 모두에게 전문가 멘토링과 포럼 및 창업 교육, 초청 강연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창업을 돕는 사업장 내부 인테리어 등 리모델링에 관한 교육도 진행한다.

남구 관계자는 “창업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이룰 기회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열정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기**지

진일보
@jinilbo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inilbo.com